

수성이나 탈환이나... 천정배 vs 양향자 빅매치

<국민의당>

<더민주>

■ 누가 뭐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이었던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빼어난 패배를 당한 곳이다. 이 때문에 더민주 측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설욕을 버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4·13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고졸 신화’ 영입인사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전격적으로 ‘전략공천’하면서 국민의당과 일전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인 천정배 공동대표와 예비후보로 등록해 표발을 갖고 있는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 경선을 벌인 공산이 크다. 여기에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에서 천정배 의원과 맞붙었던 정의당 강은미 전 광주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새누리당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새누리당=지난해 4·29 재보선에 출마해 11%의 지지율을 기록, 선전을 펼쳤던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광주 서구를 담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처장은 재보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당시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12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감에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원도 출신으로 동신고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농림수산물부 제2차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했다. 그는 35년간 중앙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꼽고 있다. 그는 지역민들을 만나면 ‘아당 정치인보다 중앙정부 예산을 더 많이 끌어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번 20대 총선은 이념이나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름	정승	양향자	천정배	김하중	강은미
나이	58	49	62	55	45
역력	·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전) 농림수산물부 제2차관	·전) 삼성전자 상무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현) 국회의원 ·전) 법무부장관	·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현) 당 서구위원회 위원장 ·현) 광주 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정당대결보다 인물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4·13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집권 새누리당 후보를 선출해 여야가 서로 공존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민주=지난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설욕을 위해 고졸 여성 출신으로 삼성전자 상무까지 오른 양향자 선대위원을 ‘필승카드’로 전략공천했다.

화순 출신으로 삼성전자 최초의 여성고 출신 임원이었던 양 전 상무는 광주여성상을 졸업한 뒤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설계팀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장 등을 거쳐 2014년 상무로 승진했다. 이러한 경력 탓에 양 전 상무는 더민주 인재영입 단계에서부터 주목받아왔다.

특히 입당 당시 “학력·성별·출신이라는 유리전장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지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며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는 최근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론’으로 고개 숙인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인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민주 측은 이러한 양 전 상무의 대중

새누리 4·29 재보선 11% 선전 정승 재도전 나서

더민주 설욕의 카드 ‘전략공천 1호’ 양향자 투입

국민의당 천정배 6선 가도에 김하중 교수 경선 도전

정의당 강은미 前 광주시의원 후보 등록 표발 누비

적 인기를 선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전략공천’카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 전 상무는 ‘홍행카드’가 아닌 ‘필승카드’라며 선거 승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광주 서구를 선거구를 택한 이유에 대해 “광주 전체의 중앙”이라며 “광주 발전은 서구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광주 전체 발전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 전 상무는 3일 광주에서 출마기자 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캠프에는 중앙당 핵심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합류해 전략과 홍보·기획을 맡는 등 중앙당 차원의 집중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상무는 선거기간 중 일자리 정책과 기업유치 정책 등 경제비전을 제시하고, 직장인들의 희망을 만드는 공약 등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의당=현역 의원인 천정배 공동

대표의 6선 도전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경선 도전장을 냈다.

천 대표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더민주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대적인 공세 속에서 52.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표와 당 지도부들이 대거 선거전에 투입된 상황에서도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며 5선의 의원이 됐다. 하지만, 천 대표는 1년도 채 안된 또 한번 민심의 선택을 받게 됐다.

천 대표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호남정치 부활’과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혁명’을 내세우며 중앙정치 및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지역민심 잡기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한국의 미래와 한국 정치의 재구성’을 주제로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주요 6개 도시를 순회하며 강연을 펼쳤다.

또한, 매주 1회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소통의 장을

■ 광주지역 선거구



만드는 ‘두시 데이트’를 그동안 27회 진행했고, 24시간 시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소통센터 천문고’를 운영하며 183건의 민원과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밖에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천정배의 정책 토론회’ 등 지역예산확보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활동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지난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모범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맞서는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넓히며 표발을 누비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목포지청장을 지낸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에서 조영택 전 국회의원에 패하면서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지역구를 떠나지 않고 ‘와신상담’하며 20대 총선을 준비했으며, 더민주를 탈당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작업에 참여하면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교수는 “새정치를 바라는 광주시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기에 평생을 정치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그 열망에 답하고자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면서 출마를 선언한 뒤 바닥민심을 내고 있다.

그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대신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풍암호수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시민 공약 캠페인’을 공모해 주요 공약 등을 만들 계획이다.

김 교수는 “당 대표와 평당원이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다면 지역구 주민은 물론 시민들이 ‘국민의당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믿어 줄 것”이라며 천 대표의 공정한 경선을 요구했다.

◇정의당=강은미 전 광주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열심히 표발을 누비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제5대 서구의회 의원, 제6대 광주시의원 등 기초·광역의원을 지낸 ‘풀뿌리 정치인’이다. 특히 제6대 광주시의원 선거에서는 진보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지역에서 당선행 인본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후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정당 활동을 벌이며 바닥민심을 다져왔다. 그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도 출마했지만, 6.8%의 득표율로 패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서구를 호남권 최고의 교육문화생태 도시로 ▲중앙공원, 국기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생태문화공원 조성 ▲옛 기무사터, ‘아동·청소년 문화의 공간’ 활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국민소득 향상 ▲서민·중산층 전월세 상한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확대 ▲복합쇼핑몰·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모든 상가 세입자에 월세 상한제 실시 및 한신보증금제 폐지 ▲아동수당 도입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관련 포인트

오는 4·13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선거구다. 야권 심장부인 광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탈환을 위해 반격에 나서는 더민주가 ‘전략공천’으로 영입인재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그만큼 ‘선거구 탈환 의지’가 강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에서는 경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민주 측이 국민의당

더민주-국민의당 호남 주도권 잡기 ‘진검승부’

수도권 출마설 千대표 “광주 떠나는 일 없다”

천정배 공동대표가 현역의원으로 있는 선거구에 ‘전략공천’ 인사를 꼽은 것은 양 전 상무를 천 대표 저격수로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민의당 경선이 끝난 뒤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서 더민주 측과 국민의당의 피할 수 없는 ‘진검승부’가 광주 서구구의 관련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장관과 5선 의원, 민주당 최고위

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인권위원장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호남의 중진 정치인의 6선 성공 여부와 여성고 출신의 첫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정치신인의 ‘돌풍’ 여부가 관건사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천 대표와의 경선 결과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개혁공천을 주장하는 천 대표에 대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천 대표는 최근 “호남을 떠나는 일은 없다”고 밝히고 조만간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파트 밀집 중산층 많아 ‘변화 바람’에 민감

■ 선거구 특징

광주 서구 선거구는 제17대 총선에 서구갑과 을로 나뉘었다.

선거구가 나뉘기 전 국회의원인 정동채 의원이 제16대에 이어 재선을 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는 김영진 의원이 당선됐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하면서 통합진보당 오병은 후보가 당선됐다.

그동안 야권의 출향 인사들과 중진 의원

들이 광주 서구를 선거구를 차지하면서 민심이 그리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과거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행정동은 화정 3·4동, 금호 1·2동, 삼우 2동, 풍암동, 서창동이다. 이 가운데 풍암동과 금호 1·2동은 대규모 아파트로 인구 밀집지역이다. 중산층 인구가 많아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바람’ 선거가 상당한 곳이다. 인구는 16만여명이며, 유권자수는 13만여명이다. /최권일기자 cki@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류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신세계백화점

백운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